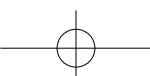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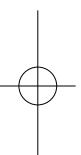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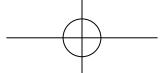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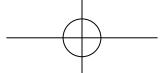
남방실크로드신화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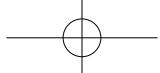
일러두기

1. 이 책은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문화재단이 진행한 '신화와 예술 맥놀이-신화, 아주 많은 것들의 시작'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강좌의 특성상 이미지나 영상, 소리 등을 이용한 강좌가 많았는데, 이 책에서도 그림과 표, 지도 등 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현장성을 살리려고 했다. 저작권 관계 등 어쩔 수 없이 생략한 이미지 자료도 있음을 밝힌다.
2. 각주를 달아 강의 내용을 보강했으며 필요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개념에는 본문에 따로 추가 설명을 달았다.
3. 각 장의 끝에 별도로 참고자료와 더 읽을 만한 자료를 소개했다.
4. 외래어 표기는 국립국어원이 정한 규칙을 최대한 따랐으나, 일부는 필자의 의견이나 관행을 따랐음을 밝힌다. 어떤 경우 그 용어가 처음 나올 때 두 가지 가능한 표기를 함께 적기도 했다.
5. 신화의 특성상 원래의 신화 자체와 훗날 우리가 접하게 된 책(혹은 예술작품)을 구분하는 게 상대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아 본문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동일한 괄호 <>를 사용했다. 단, 각주나 참고문헌에서는 기존의 관행을 따라 책은 「 」, 논문은 「 」으로 표시했다.



남방실크로드신화여행-내지4.indd 3

2017-04-24 오후 2:3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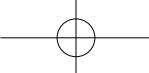
책머리에

지난 시대의 초반만 해도 아직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말레이시아 출신의 한 디아스포라 작가는 이렇게 썼다.

나는 1916년 실론에서 태어났다. 그 시절에는 귀신도 산 사람처럼 이승을 활보하고 다녔지. 휘황찬란한 전깃불과 왁자지껄한 문명에 화들짝 놀라 숲속 깊숙이 숨어들기 전이었어. 귀신들은 거대한 나무들을 틈새, 서늘한 청록색 그림자로 가득한 곳에서 살았단다. 너도 햇빛이 너울거리는 고요하기 짹이 없는 숲속에 홀로 서 있노라면,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안달이 난 귀신들의 번쩍거리는 빛과 그들이 내는 소리 없는 소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게야.¹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런 시대는 진작 사라졌다. 거리에는 어디 고 가로등과 네온사인이 번쩍거려 밤에도 가로수들은 편히 잠을 자지

¹ 라니 마니카 저, 이정아 역, 『쌀의 여신』(1), 올, 2010. p.13.



못하며, 숲은 아파트 단지와 골프장 부지로 뭉텅뭉텅 잘려나갔다. 상황이 이럴진대, 귀신인들 어디에 몸을 의탁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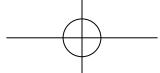
자연과 문명이 아슬아슬하게 유지해 오던 대칭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이후, 신/귀신들의 세계에도 황혼이 찾아온 것이다. 나아가 인간이 만든 지능이 인간마저 타자로 전락시킨 알파고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AI 인공지능을 향한 새로운 숭배 제의 祭儀가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신화’마저 기다려야 할 판이다.

지구 곳곳에서 신들이 자취를 감추고, 그 신들의 이야기인 신화마저 한갓 스토리텔링으로, 기껏해야 문화산업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해가는 우리 시대에, 그래도 대칭성의 마지막 시초에 올라탄 민족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주류에 밀려 비주류로, 중심에 밀려 주변으로, 다수에 밀려 소수로 전락한 자들이다.

김현선은 그들 중 한 사람인 가야노 시게루 萱野茂 씨가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투박한 눈물을 흘렸다. ‘문명’ 일본에 밀려 대대로 자신들이 살던 아이누 모시리 아이누의 땅마저 빼앗긴 채 말도 안 되는 ‘구토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슬픈 역사를 그가 기억하기 때문이었다. ‘아이누’는 ‘인간’이라는 뜻이다.

이 책은 중국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도처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의 신화에 주목한다. 그들은 다수 민족이 지배적인 세상에서 자신들의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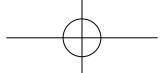
6 남방실크로드신화여행



소리조차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신화와
제의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더없이 귀중한 발언들이다.

‘남방실크로드’라는 다소 낯선 개념을 오래된 역사 속에서 되살려낸
이유 역시, 그 길을 통한 인류 문명의 교류가 눈에 보이는 재화만이 아
니라 그 언저리에 살던 모든 이들—사람과 금수와 초목과 신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두루 끌어안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때로는 비주류와
주변과 소수가 오히려 주류와 중심과 다수를 구원해줄 수도 있다는 믿
음을 우리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문화재단의 신화여행은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언덕을 넘었다.



차례

책머리에

_005

제1강

남방실크로드 : 신화의 길

‘일대일로’와 ‘해상실크로드’
남방실크로드
남방실크로드의 세 갈래 길
남방실크로드, 교역 이상의 의미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를 넘어서

_017
_021
_025
_033
_038

제2강

중국 원난성 소수민족의 신화 세계

원난성 신화에 대한 접근방식
다수민족과 소수민족의 대립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남방실크로드
원난성 소수민족들의 신화
나시족 서사시와 아이누 서사시의 비교
동아시아 소수민족 벼농사 기원신화, 그 확장과 변이
더불어 같이 하는 신화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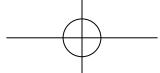
_045
_048
_054
_058
_066
_072
_078

제3강

중국 원난성 소수민족 막오족의 신화 세계

우리의 〈콩쥐팥쥐〉 이야기와 막오족의 〈오러와 오도〉 이야기
막오족은 어떤 민족인가
막오족의 창세신화
〈아페이꿔본〉 신화의 의미
〈수탉이 태양을 부르다〉
막오족의 창세신화와 우리의 창세신화

_089
_102
_104
_112
_117
_120



제4강

중국 쓰촨성 쌍성두이 유적과 신화

남방실크로드의 기점 쓰촨성	_129
쌍성두이 유적 발굴과 고족 문명	_132
고족국 왕들의 신화	_139
쌍성두이 유물과 신화	_145
문명교류로 보는 황금가면	_155

제5강

중국 원난성 소수민족 와족의 신화 세계

아와산의 원시부족, 와족	_165
와족의 창세서사시 <쓰강리>	_167
와족의 인류기원 신화	_169
와족의 곡물신화	_177
와족의 북에 대한 신앙과 ‘나무 북 끌기’	_181
와족의 머리사냥과 솔발무	_185
와족의 곡물 관련 신앙의 인문학적 의미	_190

제6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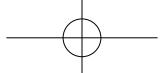
중국 원난성 소수민족 이족의 신화 세계

이족의 제의와 축제	_204
이족의 신화 자료	_217
이족 신화의 특징	_225

제7강

중국 원난성 소수민족 바이족의 신화 세계

원난성 다리와 바이족의 역사	_237
바이족의 본주신앙	_242
대표적인 본주들	_248
대흑천신 이야기	_253
바이족의 창세신화	_256



제8강

인도, 인도네시아의 신화 세계

: 남방실크로드와 관련하여

여행하는 신화

_267

〈라마야나〉 줄거리

_269

〈라마야나〉의 전승

_283

〈선녀와 나무꾼〉의 동남아판 〈마노하라〉 이야기

_286

제9강

베트남 소수민족의 신화 세계

베트남이란 어떤 나라인가

_297

베트남 소수민족의 역사와 신화 전승의 의미

_300

에데족의 영웅서사시 〈담 산〉

_307

므로족의 창세서사시 〈땅과 물의 기원〉

_323

소수민족 신화 전승의 의의

_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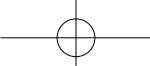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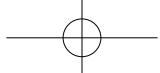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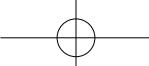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1] 일대일로-육상실크로드와 해상실크로드	_18
[그림 2] 취안저우 시내의 모스크 야경	_20
[그림 3] 남방실크로드 위치도	_21
[그림 4] 나한죽(羅漢竹), 공죽장(邛竹杖) 사진	_23
[그림 5] 박트리아 주변 지도	_24
[그림 6] 남방실크로드 문현상 세 갈래 길	_26
[그림 7] 영관도의 구불구불한 산길	_28
[그림 8] 남방실크로드 노선도를 새긴 바위	_29
[그림 9] 추승 이족 박물관 입구의 호랑이상	_30
[그림 10] 다리의 은성했던 시절을 보여주는 숭성사 탑의 아름다운 모습	_35
[그림 11] ‘세계 소수민족의 해’ 필리핀 기념우표	_48
[그림 12]『제4세계의 책』(Book of the Fourth World) 표지	_49
[그림 13]『아이누인의 군상』(アイヌ群像—民族の誇りに生きる) 표지	_50
[그림 14] 중국 원난성 위치	_53
[그림 15] 중국 원난성의 행정 구역	_61
[그림 16] 동파, 동파경	_64
[그림 17] 아이누 가족 사진	_68
[그림 18] 현재 아이누족이 살고 있는 지역, 과거 아이누족 세력이 강했던 지역	_69
[그림 19] 치리 유키에, 긴다이치 교스케와 아이누 민속에 대해 증언을 하고 있는 아이누 여성들	_71
[그림 20] 이오만테	_72
[그림 21] 막오족 도화절(跳花節) 축제의 한 장면	_100
[그림 22] 막오족의 생황(笙簧) 춤	_101
[그림 23] 성장하고 축제에 참석한 막오족 여성들	_102
[그림 24] 중국 6개 지역 구분도	_130
[그림 25] 쓰촨성 간략 지도	_131
[그림 26] 산싱두이 박물관	_132
[그림 27] 산싱두이 유적지 지도	_135



[그림 28] 2호갱에서 발견된 청동 입인상	_137
[그림 29] 민간전설 속의 잠신(蠶神, 누에신)	_141
[그림 30] 제사대, 제사대의 청동 입인상	_146
[그림 31] 다양한 청동 인두상 앞면, 청동 인두상 뒷면	_147
[그림 32] 청동 인면상 정면, 청동 인면상 측면	_148
[그림 33] 종목 인면상	_149
[그림 34] 쌈싱두이 눈	_150
[그림 35] 네팔 카트만두 스와얌부드나트 스투파의 보호의 눈	_151
[그림 36] 터키 악마의 눈, 나자르 본주	_151
[그림 37] 쌈싱두이 통천신수	_152
[그림 38] 태양의 수레바퀴	_154
[그림 39] 요전수	_155
[그림 40] 황금지팡이(윗부분), 황금지팡이 문양	_156
[그림 41] 황금가면- 쌈싱두이의 황금가면과 금사유적에서 발견된 황금가면	_157
[그림 42] 시명 가는 길, 와족 가옥	_166
[그림 43] 와족 창세신화의 내용을 형상화 해놓은 구조물 자이좡	_169
[그림 44] 룽탄공원, 룽모예	_172
[그림 45] 물소 무덤	_173
[그림 46] 라무구 제의, 라무구 제의 전 모바 접복	_180
[그림 47] 나무 북	_182
[그림 48] 솔발무	_188
[그림 49] 나시족 상형문자 임신과 출산	_201
[그림 50] 리장 고성	_202
[그림 51] 자연신과 인간과의 관계	_203
[그림 52] 호랑이 춤	_205
[그림 53] 이족 의상들	_207
[그림 54] 스린, 월호 이족 문화생태총	_208
[그림 55] 산신각, 신간	_209
[그림 56] 훠바제	_212
[그림 57] 흥완마을, 제화절 전날 산신제, 제화절 임시 장터	_214



[그림 58] 제화절 하이라이트, 나무에 마찰을 일으켜 불을 얻는 의식	_216
[그림 59]『서남이지』 원본	_222
[그림 60] 다리 고성 입구	_238
[그림 61] 다리 송성사삼탑	_239
[그림 62] 다리 고성 인근 마을에는 아침마다 장이 선다	_240
[그림 63] 손에 조롱박을 들고 있는 본주 단종방	_244
[그림 64] 바이족의 본주 신앙에서는 소도, 말도, 돌도 모두 본주가 될 수 있다	_245
[그림 65] 본주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날, 꽃가마에 본주를 모신다	_250
[그림 66] 바이족 여성들이 신는 수놓은 전통 꽃신	_252
[그림 67] 다리 인근 저우청 마을을 대표하는 염색 천	_252
[그림 68] 저우청 본주 사당에 모셔진 대흑천신	_253
[그림 69] 다리 인근 시골 마을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날 대흑천신에게 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	_255
[그림 70] 여섯 개의 팔을 가진 육비마하깔라	_256
[그림 71] 바이족 창세신화에 등장하는 최초의 바다, 얼하이	_258
[그림 72] 락슈마나가 슈르파나카의 코를 베는 장면	_275
[그림 73] 라바나의 출정 장면	_276
[그림 74] 그림자인형극 ‘와양 꿀릿’	_284
[그림 75] 라구라즈뿌르의 벽 그림 ‘라마와 락슈마나’	_285
[그림 76] 라마찬드라 사원 외벽 조각	_286
[그림 77] 보로부두르 사원 전경, 보로부두르 사원 벽면 조각	_289
[그림 78] 용왕이 할라까에게 보답으로 마술을 전해주다	_290
[그림 79] 할라까가 마노하라를 납치하는 장면	_291
[그림 80] 마노하라가 옷과 화관을 입고 하늘나라로 돌아가다	_292
[그림 81] 베트남의 위치	_298
[그림 82] 베트남 전도	_299
[그림 83] 러시아 거주 지역, 에데족 거주 지역	_300
[그림 84] 비엣족의 남진 과정	_301
[그림 85] 참파의 영토	_302
[그림 86] 닉 락 고원지대	_307